친부 찾으려 했다가 딸을 찾은 남자

친부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은 미국의 한 중년 남성이 부친 대신 딸을 만나게 됐다.

13일 N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사는 변호사 테드 우드(50, 오른쪽)는 자신의 친부를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유전자 계보 웹사이트 '앤세스트리' (Ancestry)에 가입하고 자신의 DNA를 보냈다. 고교 시절 자신을 낳은 뒤 입양 보냈던 친모를 1990년대에 찾았지만, 부친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우드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존재조차 몰랐던 딸이 있다는 연락이었다. 그러나 우드는 업체의 실수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학에 다니던 30여년 전 단돈 100달러를 벌고자 자신의 정자를 기부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우드의 딸로 확인된 사람은 텍사스주 알링턴에 사는 영어 강사 멜리사 대니얼스(27, 왼쪽)였다. 10대 시절 모친으로부터 자신이 기증된 정자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대니얼스는 작년 봄 앤세스트리에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친부를 찾을 수 있었다.

우드가 자신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자 대니얼스는 포기하지 않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 딸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우드는 아내와 상의한 뒤 생각을 정리하고 답장을 보냈다. 어색했던 이들의 대화는 정치와 코미디를 포함한 다방면의 분야에서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더욱 친밀해졌다.

2천700㎞ 떨어진 곳에 사는 두 사람은 대니얼스의 모친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어바인의 한 호텔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우드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또 다른 두 딸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모두 20대인 이들은 유전자 계보 사이트 '23앤드미' (23andMe)를 통해 찾았다.

이 자리에 동석한 우드의 아내 수전은 대니얼스가 우드와 가장 닮았다며 반갑게 남편의 새 딸들을 맞았다. 그러나 우드가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자신의 친부는 결국 만나지 못했다.

'주도' 배우다 병원 실려간 소년

아버지로부터 '주도' (酒道)를 배우던 아들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일 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사는 올해 13인 한 소년의 아버지는 술 마시는 예의를 가르친다며 아들에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바이주(白酒) 100㎖를 마시게 했다.

아들은 술을 마신 직후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이란 진단을 받았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 운동실조 및 혼수에 이르는 증상이며,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나타난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해당 소년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느껴졌으며 크게 소리를 쳐도 깨어나지 않아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소년은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날인 6일 새벽 2시경 의식을 되찾았다.

소년의 아버지는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절에 아들에게 주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 다량의 술을 한꺼번에 마시게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아이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면서 "하지만 아이를 불러도 깨어나지 않고 몸 전체가 뜨거워진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다." 고 전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다시는 아이에게 이런 식의 시도는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모지'가 차량 번호판 속으로

'이모지' 가 차량 번호판에 사용된다. 이모지는 키보드 자판 기호로 사람의 감정과 표정 등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과 달리 그림으로 모든 것을 나타낸 그림문자를 말한다.

호주 퀸즐랜드주는가 오는 3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에 총 5가지 '이모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여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15년 올해의 단어' 로 선정했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 부터 '윙크하며 웃는 얼굴' 과 '선글라스를 낀 채 웃는 얼굴' , '하트 모양 눈을 한 웃는 얼굴' , 그리고 '단순히 웃는 얼굴' 이 있으며 이 중 1개만 선택해 쓸 수 있다.

물론 번호판에는 알파벳 3문자와 숫자 2문자를 조합한 기존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 이모지 1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모지 추가에 드는 수수료는 최대 500호주달러(약 38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퀸즐랜드주 유명 자동차동호회의 홍보 담당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도 차량 번호판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나 지역의 상징을 담을 수 있었다." 면서 "이모지 추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소식에 일부 네티즌은 주 정부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필요한 이모지는 화난 얼굴일 것" 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모지 온라인사전 '이모지페디아' 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는 하루에 7억 개가 넘는 이모지가 게시물에 쓰인다. 이런 이모지를 기념하는 날도 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7월 17일은 '세계 이모지의 날' 로 지정돼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